



모세의 노래에 언급된(출 15:17)
‘성소’의 실체에 대한 탐색*

김상래(삼육대)

1. 서론

구약 성경에서 야훼가 인간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맨 처음 지시한 것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셨을 때이다. 그 때 야훼는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을지니라”(출 25:8-9)고 하였다. ‘성소를 지으라’는 이 구절은 그 신학적 의미 때문에 성경 독자들에게 매우 익숙하고 유명하다. 그러다보니 많은 독자들이 구약에서 ‘성소’라는 단어 자체가 이때에 맨 처음 등장한다고 생각한

* 이 논문은 2021년도 삼육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또한, 이 논문은 2016년 7월 3-7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Society Bibl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Meeting의 Pentateuch (Torah) Section에서 7월 7일에 발표한 “What Does the ‘Sanctuary’ in Moses Song (Exod. 15:17) Mean?”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다.¹ 그러나 그렇지 않다. 히브리 성경에서 이 단어가 맨 처음 언급된 것은 출애굽기 25장에서가 아니라 그 이전인 홍해 도강을 찬양하는 출애굽기 15장의 소위 모세의 노래 중에서도이다.

그 구절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17절)라고 묘사한다. 여기에 언급된 ‘성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야훼가 모세에게 명할 때에 언급한 히브리어와 똑같은 단어인 미크다쉬(*miqdās*)이다. 그렇다. 성소는 여기에서 맨 처음 언급되었다. 성경에서 어떤 특정 단어의 개념을 추적할 때 그것이 맨 처음 어디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후에 그 같은 단어의 용례와 의미도 그 맨 처음의 의미와 비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성소’에서도 마찬가지이다.²

그러나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언급된 미크다쉬와 관련된 이슈는 그 단어의 문자적 의미에 관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 성소가 가리키는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출애굽기 내러티브의 세계 속에서 성소를 지으라는 명령이 있기도 전에 언급된 이 성소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야훼가 ‘그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는 과연 무엇인가? 아니, 그 전에 먼저 언급된 ‘기업의 산’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서 그 산을 ‘이것’이란 대명사로 지칭하면서 그 산이 곧 ‘주의 처소’와 ‘성소’라고 은유로 설명한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 ‘기업의 산,’

1 나는 이 사실을 대학 강의실과 교회 집회에서 수없이 확인할 수 있었다.

2 이 단어 미크다쉬는 거의 언제나 영어로는 sanctuary, 한글로는 ‘성소’라고 번역된다. ‘성소’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가 있다. 미크다쉬(*miqdās*) 외에도 헤이칼(*hèkál*), 바이트(*bayt*), 코테쉬(*qódes*) 등이다. 이 단어들은 각각 영어로 sanctuary, temple, house, palace, 등으로 번역된다. 한글로는 성소, 성전, 전, 성막, 등으로 번역되었다. 그런데 히브리어 미크다쉬는 영어로는 거의 언제나 sanctuary, 한글로는 ‘성소’로 번역된다. 아주 드물게 temple로 번역된다.

‘주의 처소,’ 그리고 ‘성소’라는 세 단어의 관계는 어떠한가? 수수께끼 같이 난해한 이슈이다. 이를 풀어나가려면 매우 섬세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프리드만(Freedman)은 출애굽기 15장에서는 17절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구절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구절에 언급된 미크다쉬를 가리켜 “성전과 성소와 관련된 이슈는 영원한 성소, 곧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소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³고 하였다.

이 연구는 바로 이 구절에 나타난 이 단어 미크다쉬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작업이다. 물론, 이미 제시된 의견들이 있다. 무려 다섯 가지나 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그 기존의 견해들이 본문 자체가 설정하고 있는 정황과 어울리지 않다는 비판적 입장이다. 그래서 먼저 그 견해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대안을 찾아 제시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 기록상 최초로 언급되는 ‘성소’의 실체를 파악하고 성경 본문 이해의 폭을 학문적으로 확장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방법론과 구조 분석

본문에 대한 해석은 그 본문을 분석하는 방법론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구절이라도 다른 방법론을 적용하면 다른 해석이 나온다. 본문의 연대, 기원, 배경, 구조, 그리고 문학적 형태와 같은 요소들도 모두 방법론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결국 본문의 해석은 방법론의 결과이다. 그런데 방법론은 옳고 그름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그건 데이비스(Davies)의 말처럼 ‘선택의 문

3 David Noel Freedman, “A Letter To the Readers”, *Biblical Archaeologist* 40/2 (1977), 46-48.

제’⁴이다.

이 연구의 관심사는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언급된 미크다쉬를 현재 그대로의 최종본의 상태가 제공하는 그 내러티브의 세계에서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추적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출애굽기 15장의 본문을 현대 독자의 입장에서 문학적-공시적 접근법으로 읽을 때에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파악해 보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본문의 편집과 형성에 관한 수많은 학문적 논란에도 불구하고,⁵ 그것이 언제 어떻게 현재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종교 공동체의 어떤 필요를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추적하는 그런 학문적 접근에 대해서는 일종의 불가지론적 입장을 취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결코 다양한 방법론에 의한 풍부한 신학적 상상력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텍스트의 의미를 본문의 역사적 정황에만 국한시키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연구는 본문의 기원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오히려 본문의 파편화를 초래하였다는 인식으로 있는 그대로의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 생생한 세계 속에서 이 구절에 나타난 미크다쉬의 의미를 파악해 보려는 것이다.

여하튼 본문에 대한 접근은 문단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해야 한다. 출애굽기 15장 17절은 소위 ‘바다의 노래’라고 불리는 출애굽기 15장 1-21절에 속해 있다.⁶ 이 노래는 그 난해함으로 유명하다. 브렌너(Brenner)에 의하면 이 노

4 P. R. Davies, *In Search of 'Ancient Israel'* (JSOTSup, 148; Sheffield: JSOT Press, 1992), 13.

5 출애굽기 15:1-21의 연대에 대해서는 통일된 의견이 없다. 크로스(F. M. Cross)와 프리드만(D. N. Freedman)은 최초의 형태는 기원전 12세기경에 나와 11세기경에 현재의 형태로 되었다고 하였다. 비어(Beer)는 요시아 시대에 대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칸타타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면서 7세기로 돌렸다. 포러(G. Fohrer)는 포수기 이후로, 파이퍼(R. H. Pfeiffer)는 5세기 후반부로 보았다. 다음을 참조하라. J. P. Hyatt, *Exodus*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80), 162-63. 이 시의 연대를 둘러싼 학문적 논쟁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최명덕, “언어학적 측면에서 본 고대 히브리어 ‘바다의 노래’의 연대 문제,” 『통일인문학』 31 (1998), 179-194.

6 다음을 참조하라. Anja Klein, “Hymn and History in Ex 15: Observ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le Theology and Exodus Narrative in the Song of the Sea”,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래는 “수많은 저명한 성서학자들의 세밀한 검토를 받았지만 아직도 엄청난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⁷ 더햄(Durham)도 이 노래의 기원과 연대, 문학적 형태, 배경, 삶의 자리(*Sitz im Leben*) 등에 대한 학문적 검토가 다양하게 시도되었지만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적이지 못하였다”⁸고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와 이견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본문에서 너무나 명백한 것이 있다. 그것은 출애굽기 15장 1-21절은 두 개의 다른 노래 즉, 모세의 노래(1-18절)⁹와 미리암의 노래(20-21절)¹⁰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17절은 ‘바다의 노래’ (1-21절)¹¹ 중에서도 ‘모세의 노래’ (1-18절)에 속한다. ‘모세의 노래’ 역시 그 문학적 구조 분석에 있어서 현대 주석가들의 “상당한 관심”¹²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노래의 구조에 대한 학문적 의견 역시 여전히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주제상으로 1-12절과 13-18절로 구분

Wissenschaft 124 (2012), 516-27. Marc Rozelaar, “The Song of the Sea (Exodus XV, 1b-18)”, *Vetus Testamentum* 2 (1952), 221-228.

7 M. L. Brenner, *The Song of the Sea: Ex 15:1-21* (BZAW 195; Berlin: Walter de Gruyter, 1991), 1.

8 John I. Durham, *Exodus* (WBC 3; Waco, TX: Word Books, Publisher, 1987), 202.

9 Paul Haupt, “A Song of Moses”, *American Journal of Semitic Languages and Literatures* 20 (1904), 150-58.

10 Frank M. Cross and David Noel Freedman “The Song of Miriam”,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14 (1955), 237-50.

11 이 시의 문학적 기능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최인기, “바다의 노래(출 15:1b-18, 21)의 문학적 기능과 그 의미”, 『신학과 사회』 26/1 (2012), 37-75. 또한 성전음악으로서의 이 시에 대한 다음의 연구도 있다. 허도화, “바다의 노래(출애굽기 15:1-21): 성전음악에서 회중의 역할”, 『대학과 선교』 14 (2008), 333-359.

12 Maribeth Howell, “Exodus 15, 1b-18: A Poetic Analysis”, *Theologicae Lovanienses Ephemerides* 65/1 (1989), 5-42.

13 George W. Coats, “The Song of the Sea”, *Catholic Biblical Quarterly* 31 (1969), 1-17 (1). 그는 이 시의 형식적인 구조를 다음과 같이 보았다. 찬양에 대한 서론적 선언 (1b), 서론의 확대(2-3절), 야훼의 행위에 대한 시적 해설 (4-10절, 5-6절은 쉬어가기), 송영 (11절), 야훼의 행위에 대한 시적 해설 (12-17절, 13-14절은 쉬어가기), 그리고 송영 (18절). 그러나 Rozelaar는 이 시가 쉬어가기로 구분되는 네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2-5절; 6-10절; 11-13절; 그리고 14-17절이다. 그는 18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Marc Rozelaar, “The Song of the Sea (Exodus XV, 1b-18)”, *Vetus Testamentum* 2 (1952), 221-28 (223). Edelman에 의하면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은 다섯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다. Diana Vikander Edelman, “The Creation of Exodus 14-15”, in *Jerusalem Studies in Egyptology* (ed. Irene Shirun-Gru-

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¹⁴ 13절 이후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다. 12절까지는 바다에서 물로 애굽을 물리친 하나님의 승리가 묘사된다. 언어는 역동적이고 긴장으로 가득 차 있다. 13절부터는 그 노래는 인도와 들어감의 주제를 노래한다. 분위기는 평안하고 고요하다.¹⁵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바다가 언급되지 않는다. 13절부터는 새로운 용어들로 이 사건들을 해설한다. 그래서 차일즈(Childs)는 “이 노래의 전반부는 야훼의 승리를 묘사하고, 13절부터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한다”¹⁶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와츠(Watts)도 “이 노래는 주제에 근거하여…깔끔하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¹⁷고 하였다. 더 나아가 스미스(Smith)는 1-12절과 13-18절의 주요 두 부분이 시적 운율인 ‘운율 병행’(sonant parallelism)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¹⁸ 그는 또한 “전반부는 후반부에서 이루어질 성소-건립의 주제에 대한 기대로 볼 수가 있다”¹⁹고 하였다.

모세의 노래의 제2부인 13-18절에서 특별히 13절과 17절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두 구절은 함께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이끌어 내심과 심으심’의 주제를 전달한다. 히브리어 본문의 독음도 같은 음으로 반복된다. 13절 전반부의 나히타 브함드카(*nāhītā bʾhamdkā*)에

mach; Ägypten und Altes Testament 40;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1998), 137-58 (151-52).

14 다음을 참조하라, M. Howell, *A Song of Salvation: Exodus 15.1b-18* (PhD dissertation, Faculty of Theology,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1986), 219-21. P. K. McCarter, *Exodus* (Harper's Bible Commentary; ed. J. L. Mays;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8), 129-56.

15 Brenner, *Song of the Sea*, 31.

16 B. S. Childs, *Exodus: A Critical Theological Commentary* (OTL; London: SCM Press, 1974), 251.

17 John D. W. Watts, “The Song of the Sea-Ex XV”, *Vetus Testamentum* 7 (1957), 371-80 (372).

18 Mark S. Smith, *The Pilgrimage Pattern in Exodus* (JSOTSup 23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212-14. A. Berlin에 따르면 ‘소리 병행(sonant parallelism)’을 식별하는 기준에는 세 가지가 있다. (1) 근접한 쌍으로 이루어진 단어, (2) 최소한 두 세트의 자음이 포함, 그리고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리를 내는 자음이다. A. Berlin,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5), 104-105.

19 Smith, *Pilgrimage Pattern in Exodus*, 214. 강조첨가.

있는 ‘나…타 브…카’가 13절 후반부의 나알타 브아즈카(*nā'altā b'āz'kā*)에서 그대로 반복된다. 마찬가지로 17절의 첫 단어인 트비에모(*tbi'emô*)에 나타난 ‘트…모’의 형태가 그 다음 단어인 예티타임모(*yetitā'imô*)에 반복되고 있다.²⁰ 또한 13절의 코데쉬(*qōdesš*)란 단어가 17절에서 동의어인 미크다쉬로 반복된다. 그러므로 13절의 ‘거룩한 처소’와 17절의 ‘기업의 산,’ ‘주의 처소,’ 그리고 ‘성소’는 연결되어 해석되어야 한다. 결국 17절의 미크다쉬를 이해하려면 13절과 17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²¹

또 하나 확인할 것은 17절의 문장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이다. 단, 시의 정황은 그 미래가 먼 미래가 아니라 곧 다가올 가까운 미래라고 밝혀준다. 이 문장은 분명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고 말한다. 그래서 여기 ‘심으시리이다’고 번역된 동사는 다른 역본들에서는 ‘심으실 것입니다’ (새번역, 바른성경)로 번역되었다. 물론, 이 시의 편집이 이 구절이 예언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일종의 예언 형태로 후대에 삽입된 것이라면 이 예언은 일종의 ‘사건 후 예언’ 즉 *vaticinia ex eventu*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언급하지만 이 연구는 편집의 상황을 고려한 편집비평적 접근법을 취하지 않고 이 본문을 출애굽기 내러티브의 세계 속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보면 이 구절은 분명히 ‘사건 전 예언’ 즉 *vaticinia ante eventu*이다. 이제 이런 방법론적 입장에서 이 미크다쉬의 실체를 찾아보려 한다. 그리고 이런 방법론적 관점에서 먼저 기존의 견해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20 Brenner, *Song of the Sea*, 29-30.

21 Smith, *윳글*, 214.

3. 기존 견해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 구절에 나타난 미크다쉬는 과연 ‘무슨 성소’를 나타내는가?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들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첫째는 ‘하늘 성소’이다. 둘째는 종말론적 성전이다. 셋째는 솔로몬이 시온 산 위에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다. 넷째는 어느 특정한 거룩한 공간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이다. 다섯째는 시내 광야에 세워진 출애굽기 25장 8절의 ‘모세 성막’이다. 이제 이 견해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1) 하늘성소

이 미크다쉬를 하늘성소로 이해하는 해석은 주로 유대 랍비들이 제안한 것이다. 예를 들어, ‘주께서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The Lord by Wisdom Founded the Earth)’는 제목의 미드라쉬는 출애굽기 15장 17절을 지상성소에 대응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 성소’를 나타내는 증거구절로 제시하였다.²² 메킬타(Mekhilta)는 출애굽기 15장 17절의 ‘주의 처소’를 하늘 보좌와 지상 보좌의 대응을 나타내는 증거구절의 하나로 보았다.²³ 현대 학자들 중에서는 캐롤 마이어(Carol Meyers)가 출애굽기 15장 13절과 17절이 각각 ‘하나님의 하늘 거처’와 ‘하늘 성전’을 가리킨다고 보았다.²⁴ 그러나 이들은 그런 해석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이해한 이유는 단지 17절의 성소가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졌다’는 것뿐이다. 또한 마이어는 “하나님의 하늘 거처(출 15:13)…하늘성전(출 15:17)”과 같은 방식으로

22 Victor Aptowitz, *Celestial Temple as Viewed in the Aggadah* (Jerusalem: International Center for University Teachings of Jewish Civilization: Tel Aviv: Everyman's University, 1983), 12, 23에서 재인용.

23 윗글, *Celestial Temple*, 10.

24 Carol Meyers, 'Temple, Jerusalem', *Anchor Bible Dictionary* (1992), volume 6, 352.

아무 설명 없이 그저 괄호 안에 해당 성구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프리드만(Freedman)도 출애굽기 15장 17절의 미크다쉬를 하늘 성전이라고 보았다. 그는 먼저 출애굽기 15장의 문학적 통일성, 장르, 그리고 사용된 용어를 고려할 때에 13-18절의 주제에 해당되는 배경은 '시내 광야'이며, 따라서 17절의 '산'은 시온 산이 아니라 시내 산이 분명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시내 산 정상에 "야훼의 궁전이 섰고...이 하늘 성전 혹은 성소가 모세가 본 타브니트(*tabnit*) 혹은 모형"²⁵이 되었으며, 출애굽기 15장 17절의 "주께서 그의 손으로 성소를 세우셨다"는 것은 곧 "거룩한 지경의 한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산의 정상에 하늘성소를 세운 것을 가리킨다"²⁶고 하였다. 현재의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는 현대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해석은 출애굽기 내러티브의 시공간적 정황과 어울려 보인다. 왜냐하면 17절이 가까운 장래에 곧 이루어질 '약속'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증이 서려면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 도착한 출애굽기 19장 이후의 본문에서 과연 시내 산에 하늘성소가 임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그런 분석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이 노래의 내용이 광야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과 이 성소가 '주의 손에 의해 세워진다'는 사실만으로 이 미크다쉬를 '시내 산 정상에 세워진 하늘성소'라고 하였다.

'주의 손으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데이카(*yādeykā*)의 '손'이 단수가 아니라 쌍수라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한 해석도 있다. 즉, 미크다쉬는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특별히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사 48:13)다는 구절과의 비교 속에서 제시된다. 이사야의 본문에서 '내 손'은 단수이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을 단순하게 비교해 본다

25 Freedman, *읽글*, 47-48.

26 *읽글*, 48.

면 우주는 하나님의 ‘한 손’으로 창조되었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두 손’으로 창조된 것이다. 랍비 라쉬(Rashi)는 이 사실을 근거로 성전은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이 머무르는 대상이라고 하였다.²⁷ 이런 논증이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진’이라는 구절의 의미를 심화시키며 그렇게 세워진 성전은 우주의 차원 일 수 있다는 개연성을 높여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증거만으로는 이 본문의 미크다쉬가 하늘 성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심지어 지상의 성소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 본문이 시편 78편이다. 시편 78편과 출애굽기 15장은 같은 용어들이 “밀접한 병행 문맥”²⁸으로 나타나 있다. 이 두 본문은 많은 용어들이 병행하며 출애굽의 광야 여정이라는 같은 주제를 다룬다. 첫째로 두 본문에서 모두 물의 ‘넘침’이 언급된다(출 15:8; 시 78:13). 둘째로 동사인 ‘인도하다’와 ‘언다’가 똑같이 사용된다(출 15:8; 시 78:13). 셋째로 명사 ‘산’도 병행한다(출 15:17; 시 78:54). 그리고 마침내 ‘성소’가 두 시의 말미에서 언급된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17절의 미크다쉬와 시편 78편 69절의 미슈켄(*miškēn*)이다. 그런데 시편 78편 69절에 언급된 미슈켄은 의심의 여지없이 시온 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다. 왜냐하면 68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이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본문에 의하면 인간의 손으로 세운 지상성전도 야훼가 ‘지으신’ 것이다.²⁹ 그러므로 단지

27 Rashi, *Pentateuch with Targum Onkelos, Haphtaroth, Exodus*, translated by M. Rosenbaum & A. M. Silbermann (New York: Hebrew Publishing Company, 1900), 79.

28 David Noel Freedman, *Pottery, Poetry, and Prophecy: Studies in Early Hebrew Poetry*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80), 214.

29 Smith (윗글, 226)는 “출애굽기 15장의 시는 시편 78편 신학의 선구자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시내 언약(Sinai covenant)이 시에 나타난 시온 신학(Zion theology)에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Meyers (윗글, 360)는 시편 78:69-70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성전을 놓은 것이 태초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원생적 사건(a

‘주의 손이 지으셨다’는 표현 때문에 이 구절에서 미크다쉬는 하늘 성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다.³⁰

2) 종말론적 성소

이 견해는 최근에 제안된 것이다. 케빈 첸(Kevin Chen)은 출애굽기 15장 17절의 미크다쉬가 종말론적 성소³¹라고 제안하였다. 그도 역시 “주의 손으로 세우신”이란 표현의 해석에 집중하였다. 이 해석도 출애굽기 15장 17절의 성소를 하늘성소로 보지만 그 출현의 때를 ‘종말’로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는 이 본문의 ‘성소’는 파괴된 솔로몬 성전은 물론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어떤 성소도 아니라고 주장한다.³² 그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는 그 구절 자체에 종말론적 출현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오경을 비롯한 구약과 신약에 바로 그런 성소에 대한 기대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케빈 첸은 출애굽기 15장 1-18절과 관련된 오경의 구절로 창세기 49장, 민수기 22-24장, 그리고 신명기 32-33장을 다룬다. 이 구절들은 모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지서의 구절로는 먼저 출애굽기 15장 13절의 ‘주의 거룩한 처소’와 병행하는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렘 31:23)을 제시한다. 또한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protological event)’ 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30 랍비해석 중에도 이 구절의 ‘성소’를 오히려 지상성소로 본 해석이 있다. Genesis Rabbati는 벨엘에서 꿈에서 깨어난 야곱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친히 하늘에 성전을 지으셨다고 말하려면 하나님은 또한 출애굽기 15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지상에도 그의 손으로 성전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Aptowitz, 윗글, 20.

31 Kevin Chen, *Eschatological Sanctuary in Exodus 15:17 and Related Texts*, Studies in Biblical Literature, Vol. 154 (New York: Peter Lang, 2013). 이 책은 그가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 제출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을 다듬은 것이다.

32 Richard S. Briggs, “Book Review of *Eschatological Sanctuary in Exodus 15:17 and Related Text*”,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0/5 (2016), 61.

조용히 쉬는 곳”(사 32:18),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사 33:20), 등을 예언적으로 출애굽기 15장의 본문과 병행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여호와와의 보좌”(렘 3:17)라 불리는 종말론적 예루살렘,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겔 37:26) 하겠다는 에스겔 성소, 시온의 환상(을 4:16-21; 미 4:1-3; 사 2:2-4)에 나타난 언어적 근접성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시편에 나타나는 시온 텍스트(시 48:9; 87:5; 102:17; 147:2) 등은 모두 출애굽기 15장과 언어적 사상적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이 구절들은 모두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나타난 ‘성소’에 대한 반향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두 구절에 주목한다. 그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히 9:11)과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히 9:24)에 주목한다. 이 두 구절에 언급된 ‘손으로’는 모두 ‘사람의 손’을 의미한다. 11절이 말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고, 24절이 말하는 예수가 들어가지 아니한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 신약의 이런 구절들도 출애굽기 15장 17절의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를 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상의 것이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은 당연히 지상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한 콤파사본의 구절(4Q1741:2-3)도 같은 사상을 전달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그는 이런 해석이 오리게네스, 제롬 히에로니무스, 베다, 마우어(R. Maur), 그리고 유대 랍비 라쉬를 거쳐 현대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요약하면, 이런 모든 해석들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는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영적 성소라는 것이다.

출애굽기 15장의 한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 구약과 사해사본을 거쳐 신약까지 관련 구절을 찾아가는 그의 조사는 방대하고 철저하다. 그러나 그의 논

증 역시 ‘손으로 짓지 아니한’이란 구절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 시의 범주가 시내 광야를 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후대에 나타난 개념들이 어떤 역사적 원형에 대한 메아리로 반복될 수가 있다. 그러나 본문에 제시된 ‘성소’가 역사를 따라 각 시대의 종말론적 성소 출현에 대한 기대로 반사되었다는 사실과 출애굽기 15장 본문 자체에 나타난 성소가 처음부터 종말론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다시 말해, 그는 각 시대의 종교적-문학적-역사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후대의 해석을 곧 원문의 의미로 재투사하였다. 특별히, 신약의 본문을 구약의 구절과 비교하려면 넘어야 할 과정이 너무 많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접근은 방법론적 비약이 심하다. 무엇보다도 그는 ‘종말론적’이라는 용어 자체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다.³³

3) 가나안 땅

일부 학자들은 본문의 미크다쉬를 ‘전체 가나안 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이해는 “주께서 인도하시되…들어가게 하신”(13절) 곳이 바로 가나안 땅 자체라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15절에서 언급된 ‘가나안’도 훗날 이스라엘이 거주하게 된 전체 지역을 가리킨다고 본다. 마르틴 노트(M. Noth)는 이러한 관점에서 13절에 언급된 ‘거룩한 처소’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에 대한 일반적 지칭”³⁴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17절에 언급된 ‘산’과 ‘거처’와 ‘성소’도 모두 가나안 전체 땅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였다.

33 Seth M. Ehorn, “Book Review of Eschatological Sanctuary in Exodus 15:17 and Related Text”, *The Expository Times*, 125/3 (2013), 138-139.

34 Martin Noth, *Exodus: A Commentary*, translated by J. S. Bowden *Das Zweite Buch Mose*, Exodu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2), 125.

‘산’은 어떤 특정한 개별 산이 아니다. 그것은 전체 가나안 땅을 가리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거주한 곳이 산악과 구릉 지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었다. 실제로 모세는 가나안 지경을 가리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신 3:25)이라고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노트는 결국 “17절 하단의 ‘성소’는 단 하나의 성소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전체 땅으로 보아야 한다”³⁵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유다는 여호와와의 성소”라는 시편 114편 2절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는다. 여기서 유다는 유다 지경의 땅을 의미한다. 이어지는 구절들에 언급된 바다, 산들, 그리고 땅이 그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주장의 문제점은 주어진 본문의 문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문은 출애굽의 여정을 시내 광야의 범주 안에서 묘사한다. 13절부터 홍해 도강 이후의 여정이 시작된다. 거기서 ‘거룩한 처소’로 인도되어 들어가는 것이 언급된다. 14-1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리적 이동에 따라 이방 백성들의 공포에 찬 반응이 묘사된다. 블레셋, 에돔, 모압, 그리고 가나안이 차례로 언급된다. 블레셋이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그들이 해양로(*via maris*)를 따라 애굽과 직접 경계를 이루고 있어 틀림없이 가장 먼저 출애굽 소식을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에돔과 모압이 언급된 것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을 통과하여 우회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13절의 ‘거룩한 처소’는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인 가나안 땅일 수가 없다. 블레셋, 에돔, 모압은 당연히 가나안이 아니다. ‘가나안’이 언급되었지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내용이다. 이 시에서는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 17절의 산, 처소, 성소는 전체 가나안 땅일 수는 없다.

35 윗글, 126.

4) 예루살렘 성전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해석은 17절에 언급된 미크다쉬의 실체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견해의 전제는 13절과 17절을 “이스라엘의 후대 역사에서 이루어질”³⁶ 출애굽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17절의 ‘기업의 산,’ ‘하나님의 처소,’ 그리고 ‘성소’는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본다. 이 견해는 이 세 개의 구절을 모두 합하여 17절의 미크다쉬는 ‘시온 산에 건설되어 하나님의 궁전으로 선포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고 이해한다.³⁷ 이런 이해를 따른다면 17절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기업의 산’은 “가나안의 구릉 지역이 아니라”³⁸ ‘시온 산’을 가리킴에 틀림이 없다. 더함은 이 시온 산이 바로 여호와께 ‘속한 산’이며, 동시에 여호와께서 마침내 그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실 산’이며,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들을 우뚝 ‘세워주실 산’으로 “새로운 시내산”이라고 하였다.”³⁹ 그 산 위에 세워진 ‘성소’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보면 17절은 결국 출애굽의 궁극적 목표를 제시한 예언이나 약속이 된다. 이러한 개념은 소위 시온 신학을 나타내는 다른 시편 구절들의 지지를 받는다. 예를 들어, 시편 78편 68-69절은 야훼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다고 한다. 시편 132편 13-14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 해석의 가장 큰 난점은 13-18절의 본문을 바다에서의 구원을 찬양하는 1-12과 어떻게 시대적으로 일치시키는가 하는 점이다. 1-12절과 13-

36 Watts, 윗글, 371.

37 R. E. Clements, *God and Temple* (Oxford: Basil Blackwell, 1965), 52-55.

38 C. E. Keil & E. 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ume 1 (Grand Rapids, Eerdmans, 1980), 55.

39 Durham, 윗글, 209.

18절의 시간적 간격이 너무 큰 것이다. 텍스트에 나타나는 이런 시간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치하지 않는 본문을 후대의 첨가나 삽입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루살렘 성전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당연히 13-18절을 1-12절에 이어서 후대에 덧붙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런 논증을 강화하기 위해 본문에 나타난 용어들이 다윗 시대의 언어적 용례와도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13절의 ‘처소’라는 히브리어 나웨(*nā'eh*)는 다윗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데에 사용되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 그는 언약궤를 가져 온 사독에게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도로 가져다 놓으라고 명하면서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삼하 15:25)고 하였다. 이때에 언급된 ‘계신 데’가 바로 나웨(*nā'eh*)이다. 차일즈(Childs)는 이 시의 종결인 “여호와께서 영원무궁 하도록 다스리시도다”는 18절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의 기능을 드러낸다”⁴⁰고 하였다. 다시 말해, 그런 종결은 왕정 시대에 진행된 공적 예배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의 가장 큰 난점인 ‘시대착오’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렇게 해석하면 출애굽기 내러티브의 세계에서 이 시가 주는 생생함은 사라지고 만다. 무엇보다 시내 광야를 배경으로 하는 이 시의 맥락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이어지는 모세 성막론에서 계속된다.

5) 모세 성막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시의 맥락이 시내 광야인 것은 명백하다. 그것은 13-16절에 언급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에 따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40 Childs, 윗글, 252.

이방에 대한 언급에서 확인된다. 14절은 “여러 나라가 듣고 떨었다”는 것으로 시작하여, 블레셋, 에돔, 모압, 그리고 가나안을 차례로 언급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러 나라가 ‘듣고’ 떨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 특별히 15절에는 ‘가나안 주민’도 언급되어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가나안이 정복되었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다. 이것은 단지 그들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였음을 들었다는 의미이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시내광야에 이르렀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그 소식을 듣고 심지어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는 사실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말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그녀는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들에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수 2:10-11)다고 하였다. 그들은 다만 ‘듣고’ 두려워하였다. 이 시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이르지 않았다. 그들의 공간적 배경은 여전히 ‘광야’이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는 ‘가나안 정복’이 암시되어 있지 않다. 결국, 헬퍼(Halpern)의 말대로 “13-17절은 정복의 기사로 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시내에 이르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⁴¹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하튼 이 노래의 범주는 시내광야를 넘지 않는다.⁴²

41 Baruch Halpern, *The Emergence of Israel in Canaan* (SBLMS 29; Chico, CA: Scholars Press, 1983), 38-39. 그는 출애굽기 15장은 6개의 전승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제1전승가(1절), 제2전승가(2-5절), 제3전승가(6-8절), 제4전승가(9-10절), 제5전승가(11-12절), 그리고 제6전승가(13-17절). Hyatt는 13-18절은 가나안 정복을 전제한다고 하였다. *Exodus*, 163.

42 Freedman, *읽글*, 47.

다섯 번째의 견해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 시의 범주가 시내 광야이기 때문에 17절의 미크다쉬는 야훼가 모세에게 지으라고 명한 바로 그 성막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다. 스미스(Smith)는 이 미크다쉬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미크다쉬라고 불린, 출애굽기 25-31, 35-40장의 성막”⁴³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출애굽기 25장 8절의 미크다쉬가 출애굽기 15장 17절에 표현된 바와 같이 하나님 자신의 거처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이해는 출애굽기 15장 17절 그 자체 안에 표현된 용어와 충돌된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지으라’는 명령이 주어졌다. 반면에 출애굽기 15장 17절의 미크다쉬는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세운 것이다.

4.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우리는 지금까지 출애굽기 15장 17절의 ‘성소’에 대한 다섯 가지 해석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주장들은 최종본의 출애굽기 내러티브 세계 속에서 읽을 때에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첫째, ‘주의 손으로 지으신’이라는 구절에 근거하여 본문의 미크다쉬를 ‘하늘성소’로 본 해석은 그 근거가 절대적이지 않다. 성경은 사람이 지은 성소도 야훼가 세웠다고 표현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 해석은 이 시의 범주인 ‘시내 광야’를 벗어난다. 둘째, ‘종말론적 성소’도 마찬가지이다. 더군다나 이 해석은 후대의 여러 재해석을 본문에 역투사한 것이다. 셋째, ‘가나안 땅’으로 보는 견해는 정복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개념이다. 그런데 이 시에는 정복 개념이 나타나지 않는다. 넷째,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는 해석은 비록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

43 Smith, 윗글, 226.

고 있지만 역시 이 시의 시공간적 정황과 맞지 않다. 다섯째, ‘모세성막 설’은 비록 시의 정황과는 일치하지만 ‘주의 손으로 세웠다’는 표현과 사람에게 주신 ‘지으라’의 명령의 차이를 규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이 나타내는 바대로 시내 광야의 범주 안에서 이제 다른 대안을 찾아 더 나아가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본문의 범주는 홍해 이후 가나안 이전까지의 시내 광야이다. 그것은 13-17절의 구조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13-17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a) 13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여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심
- (b) 14-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에 따라 이방이 두려워 함
- (a')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심

이러한 구도는 14-16절(b)을 가운데에 두고 13절(a)과 17절(a')이 양쪽에서 같은 사상을 전달하는 일종의 교차덧구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런 관점에서, 13절의 ‘거룩한 처소’와 17절의 ‘기업의 산’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관계는 일반 공간과 특정 공간이다. 즉, ‘거룩한 처소’는 이제 막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시내 광야’ 전체를 의미한다면, ‘기업의 산’은 그 광야에서 야훼가 인도하실 특별한 지점으로서의 ‘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산이 ‘시내 산’이라는 프리드만(Freedman)의 판단은 정확하다. 그렇다면 주께서 ‘심으실 것’이라는 예언도 그때로부터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예언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이 된다. 물론 이 본문이 문학 장르상 노래라는 이유로 이 본문에 나타난 것을 예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노래는 노래이되 그냥 노래가 아니라 승전기이다. 승전가는 전쟁 후에 참전한 자들의 생존 시에 형성된다. 또

한 승전가에 포함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은 결국 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⁴⁴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에 이 텍스트는 본문의 역사적 정황의 범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17절의 해석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그것은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심으시리이다”고 예언된 곳은 ‘주의 처소’나 ‘성소’가 아니라 ‘산’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은 그 ‘산’을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고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설명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텍스트에서는 ‘산’이 주개념이고, ‘처소’와 ‘성소’는 그 산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보조 개념이다. 다시 말해 ‘산’이 곧 ‘주의 처소’이고 ‘성소’라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언급된 ‘산’과 ‘처소’와 ‘성소’의 관계를 압축해서 표현하면 ‘산-처소(mountain-abode)’와 ‘산-성소(mountain sanctuary)’이다. 그렇다. 출애굽기 15장 17절의 미크다쉬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성소(house-sanctuary)’가 아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세우신 ‘산-성소’이다. 이 사실은 시내 산 모티프가 나타난 출애굽기 19-24장의 본문을 분석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⁴⁵ 모세가 야훼로부터 성소를 지으라는 명령을 들은 것은 출애굽기 25장에서이다. 그런데 그 이전인 출애굽기 19-24장에 묘사된 ‘시내 산’으로 임하시는 야훼의 임재와 모세의 증보는 시내 산 자체가 ‘성소’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시내 산에 대한 야훼의 접근 지시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강림 이전에 시내 산 주변에 경계를 정하고 일반 백성은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

44 Freedman, 윗글, 47.

45 더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김상래, “출애굽기 25:9의 ‘식양’과 ‘보이는 대로’에 대한 재해석: 출애굽기 19-24장을 공관적/요약적 반복의 문학기법을 이용하여 읽음으로써,” 「구약논단」 14 (2003), 27-48.

도록 지시하였다(출 19:12). 그러나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그 경계를 넘어 시내 산으로 오를 수 있었다(출 24:1, 9-14). 그중에서도 모세는 홀로 산의 정상까지 올랐다(15절). 한 마디로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하도록 허용되는 정도가 달랐다. 젠슨(Jenson)의 표현처럼 소위 ‘등급화 된 거룩’(graded holiness)⁴⁶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구분은 발렌타인(Valentine)의 주장처럼 성소와 지성소로의 접근에 대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규례와 거의 일치한다.⁴⁷ 한 마디로, 시내 산이 곧 ‘성소’가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성소의 등급화 된 거룩을 미리 맛본 것이다.

둘째로, 출애굽기 24장 9-18절에 묘사된 시내 산에서 있었던 지도자들의 특별한 경험이다. 출애굽기의 성소 내러티브에서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출애굽기 19-24장에 나오는 앞의 내러티브와 출애굽기 19-24장, 35-40장, 레위기, 민수기 1-10장에 이어지는 제사제도법을 연결하는 중심점”⁴⁸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9-10절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고 묘사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다. 즉, ‘하나님 대면’(visio Dei)의 경험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그 발아래의 정황이다. 여기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청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로 단어 사피르(*sapir*)이다. 이 단어는 영역본에서 청색 혹은 진청

46 Philip Peter Jenson, *Graded Holiness: A Key to the Priestly Conception of the World* (JSOTSup 10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47 J. Valentine, *Theological Aspects of the Temple Motif in the Old Testament and Revelation* (PhD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1985), 34를 참조하라.

48 Thomas M. Dozeman, *God on the Mountain: A Study of Redaction, Theology and Canon in Exodus 19-24*, (SBL Monograph Series 37; ed. Adela Yarbo Collins: Atlanta, GA: Scholars Press, 1989), 131.

색을 띠는 sapphire(사파이어)⁴⁹나 lapis lazuli(청금석)⁵⁰로 번역되었다.⁵¹ 흥미롭게도 이 단어가 에스겔 1장에서는 야훼의 ‘병거-보좌’에 관한 묘사에 사용되었다. 에스겔은 그 보좌의 모양이 “남보석 같”(겔 1:26)다고 하였다. 여기 ‘남보석’이 바로 사피르이다. 같은 사피르이지만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야훼의 발아래를, 에스겔 1장에서는 보좌를 묘사하는 데에 쓰였다. 브렌너(Brenner)의 설명처럼 출애굽기는 사피르로 된 하나님의 ‘발등상’을, 에스겔은 사피르로 된 하나님 ‘보좌’를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² 이것은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지금 그들이 산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이제 곧 지으라는 명령이 주어질 성소의 원형으로 ‘하늘 성소’가 계시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늘 성전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인 계시를 보았다”⁵³고 한 도즈맨(Dozeman)의 판단은 정확하다.

셋째로 산 정상에서 구름 가운데 들어간 모세의 경험이다. 모세는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 하나님을 본다(24:9-10). 이후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12절)는 명령을 받는다. 그는 여호수아를 대동하고 출발하여 마침내는 여호수아도 두고 홀로 산 정상에 오른다(13-15절). 여기서 내레이터는 모세에게서 눈을 돌려 산의 정황을 묘사한다. “여호와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옛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24:16). 여기에 성소와 관련된 세 개의 핵심 용어가 등장한다. 바로 ‘영광’과 ‘머무르고’와 ‘구름’이다. 야훼는 모세에게 회막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출

49 KJV, RSV, NIV.

50 NASB, RSV 난하주, NIV 난하주.

51 Athalya Brenner, *Colour Terms in the Old Testament* (JSOTSup 21; Sheffield: JSOT Press, 1982), 167. “sapis는 lapis lazuli와 동일시될 수 있다.”

52 Brenner, *윗글*, 166, 168.

53 Dozeman, *윗글*, 113.

29:43)라고 하였다. 야훼는 모세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면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라고 하였다. 24장 16절의 ‘머무르고’와 25장 8절의 ‘거할’이 같은 동사 샤흐(*šakan*)이다. 한 마디로 이 시내 산의 정황 묘사는 곧 그곳이 ‘성소’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시내 산 위의 “구름 속으로 들어”(출 24:18)갔다는 진술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출애굽기 40장 34절과 비교하면 명료해진다. 이 두 구절의 병행과 일치하는 지금 시내 ‘산’이 성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 준다.

출 24:15-16a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와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출 40:34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결론적으로 출애굽기 15장 17절의 미크다쉬는 ‘시내 산-성소’이다. 그것이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만드신 ‘처소’이며 ‘성소’이다. 야훼는 그곳에 왕으로 거하시며 통치하신다. 출애굽기 15장 13-18절은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서 곧 하게 될 가까운 미래의 경험을 예언의 시제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5.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현재 있는 그대로의 출애굽기의 최종본 내러티브의 세계에서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언급된 ‘성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추적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다섯 개의 기존 해석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는 ‘하늘성소,’ ‘종말적 성소,’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모세 성막’

은 모두 이 시의 문맥적 배경과 맞지 않거나 용어와 맞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런 비판에 근거하여 새로운 대안을 찾았다. 그것이 바로 ‘시내 산-성소’이다. 그것은 시내 산 정상뿐만 아니라 시내 산 자체가 ‘성소’로 기능하고 있다는 관점이다. 이 해석은 첫째로 홍해 도강 이후 가나안 도착 이전까지라는 이 시 문맥의 시공간적 배경과 일치한다. 둘째로 ‘성소’를 ‘산’을 설명하는 보조 개념으로 설정한 본문의 구성과 일치한다. 셋째로 ‘주의 손으로 세우신’이라는 설명과 일치한다. 넷째로 출애굽기 19-24장의 본문이 그런 이해를 확증해 준다. 다섯째로 출애굽기 내러티브의 생생함이 그대로 살아난다. 결국, 이렇게 이해할 때 이 시는 이제 막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다가올 시내 산 경험을 예언과 약속으로 노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이해는 본문 자체가 묘사하는 역사적 상황에서 텍스트를 해석할 때 어떤 새로운 이해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며 성경 기록상 최초로 언급되는 ‘성소’의 실체를 파악하고 성경 본문 이해의 폭을 학문적으로 확장하는 데에 기여가 될 것이다.

6. 참고문헌

- 김상래. “출애굽기 25:9의 ‘식양’과 ‘보이는 대로’에 대한 재해석: 출애굽기 19-24장을 공관적/요약적 반복의 문학기법을 이용하여 읽음으로써.” 『구약논단』 14 (2003), 27-48.
- 최명덕. “언어학적 측면에서 본 고대 히브리 시 ‘바다의 노래’의 연대 문제.” 『통일인문학』 31 (1998), 179-194.
- 최인기. “바다의 노래(출 15:1b-18, 21)의 문학적 기능과 그 의미.” 『신학과 사회』 26/1 (2012), 37-75.
- 허도화. “바다의 노래(출애굽기 15:1-21): 성전음악에서 회중의 역할.” 『대학과 선교』

14 (2008), 333-359.

Aptowitz, Victor, *Celestial Temple as Viewed in the Aggadah* (Jerusalem: International Center for University Teachings of Jewish Civilization; Tel Aviv: Everyman's University, 1983).

Berlin, A.,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5).

Brenner, Athalya, *Colour Terms in the Old Testament* (JSOTSup 21; Sheffield: JSOT Press, 1982).

Brenner, M. L., *The Song of the Sea: Ex 15:1-21* (BZAW 195; Berlin: Walter de Gruyter, 1991).

Briggs, Richard S., "Book Review of Eschatological Sanctuary in Exodus 15:17 and Related Text,"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0/5 (2016).

Chen, Kevin, *Eschatological Sanctuary in Exodus 15:17 and Related Texts*, Studies in Biblical Literature, Vol. 154 (New York: Peter Lang, 2013).

Childs, B. S., *Exodus: A Critical Theological Commentary* (OTL; London: SCM Press, 1974).

Clements, R. E., *God and Temple* (Oxford: Basil Blackwell, 1965).

Coats, George W., "The Song of the Sea", *Catholic Biblical Quarterly* 31 (1969), 1-17.

Cross, Frank M. and Freedman, David Noel, "The Song of Miriam",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14 (1955), 237-50.

Davies, P. R., *In Search of 'Ancient Israel'* (JSOTSup 148; Sheffield: JSOT Press, 1992).

Dozeman, Thomas M., *God on the Mountain: A Study of Redaction, Theology and Canon in Exodus 19-24* (SBL Monograph Series 37; ed. Adela Yarbo Collins; Atlanta, GA: Scholars Press, 1989).

Durham, John I., *Exodus* (WBC 3; Waco, TX: Word Books, Publisher, 1987).

Edelman, Diana Vikander, "The Creation of Exodus 14-15", in *Jerusalem Studies in Egyptology* (ed. Irene Shirun-Grumach; Ägypten und Altes Testament 40;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1998), 137-58.

Ehorn, Seth M., "Book Review on Eschatological Sanctuary in Exodus 15:17 and

- Related Text,” *The Expository Times*, 125/3 (2013).
- Freedman, David Noel, “A Letter To the Readers”, *Biblical Archaeologist* 40/2 (1977), 47-48.
- Freedman, David Noel, *Pottery, Poetry, and Prophecy: Studies in Early Hebrew Poetry*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80).
- Halpern, Baruch, *The Emergence of Israel in Canaan* (SBLMS 29; Chico, CA: Scholars Press, 1983).
- Haupt, Paul, “A Song of Moses”, *American Journal of Semitic Languages and Literatures* 20 (1904), 150-58.
- Howell, M., *A Song of Salvation: Exodus 15.1b-18* (PhD dissertation, Faculty of Theology,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1986).
- Howell, Maribeth, “Exodus 15, 1b-18: A Poetic Analysis”, *Theologicae Lovanienses Ephemerides* 65/1 (1989), 5-42.
- Hyatt J. P., *Exodus*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80).
- Jenson, Philip Peter, *Graded Holiness: A Key to the Priestly Conception of the World* (JSOTSup 10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 Keil, C. E. & Delitzsch, E.,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ume 1 (Grand Rapids, Eerdmans, 1980).
- Klein, Anja, “Hymn and History in Ex 15: Observ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le Theology and Exodus Narrative in the Song of the Sea”,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24 (2012), 516-27.
- McCarter, P. K., *Exodus* (Harper’s Bible Commentary; ed. J. L. Mays;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8).
- Meyers, Carol, “Temple, Jerusalem”, *Anchor Bible Dictionary* (1992), volume 6, 350-69.
- Noth, Martin, *Exodus: A Commentary*, translated by J. S. Bowden *Das Zweite Buch Mose, Exodu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2).
- Rashi, *Pentateuch with Targum Onkelos, Haphtaroth, Exodus*, translated by M.

- Rosenbaum & A. M. Silbermann (New York: Hebrew Publishing Company, 1900).
- Rozelaar, Marc, "The Song of the Sea (Exodus XV, 1b-18)", *Vetus Testamentum* 2 (1952), 221-228.
- Smith, Mark S., *The Pilgrimage Pattern in Exodus* (JSOTSup 23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 Valentine, J., *Theological Aspects of the Temple Motif in the Old Testament and Revelation* (PhD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1985).
- Watts, John D. W., "The Song of the Sea-Ex XV", *Vetus Testamentum* 7 (1957), 371-80.

검색어

출애굽기 15:17

모세의 노래

미크다쉬

성소

시내 산

Exploring the Reality of ‘Sanctuary’ Mentioned in the Song of Moses (Exod 15:17)

Sang-Lae Kim

Sahmyook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ality of the ‘sanctuary’ mentioned in Exodus 15:17 in the world constructed by Exodus. In order to do this, I analyze five existing views. I find that ‘heavenly sanctuary,’ ‘eschatological sanctuary,’ ‘land of Canaan,’ ‘Jerusalem Temple,’ and ‘Moses’ s Tabernacle’ do not fit the contextual background or terms of the poem. Based on this critique, a new alternative is suggested: the ‘Sinai mountain-sanctuary.’ This study argues that the mountain Sinai itself is functioning as a ‘sanctuary.’ This interpretation is firstly consistent with the spatio-temporal background of Exodus’s poetic context. Secondly, it coincides with the structure of the text, where ‘sanctuary’ is set as complementary to ‘mountain.’ Thirdly, it coin-

cides with the description of ‘thy hands have established.’ Fourthly, the text of Exodus 19-24 confirms such an understanding. Fifthly, the vividness of the Exodus narrative comes to life in the present form. In the end, when the text is understood in this way, it is revealed that this poem was sung by the Israelites who had just crossed the Red Sea as prophecy and promise about the upcoming Mount Sinai experience.

Key Words

Exodus 15:17

Song of Moses

Miqdash

Sanctuary

Sinai Mountain

- 투고일: 2021년 3월 16일
- 심사일: 2021년 5월 1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5월 8일